

흩어진 양을 찾는 참 목자

본문 : 에스겔서 34장 1-16절

2020년 4월 15일(수)

어제는 '누가 신앙의 "남은 자"인가'라는 내용의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누가 이스라엘의 "참 목자"인가'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1. 양떼의 소유권

6절 "내 양... 내 양...", 8절 "... 내 양... 내 양... 내 양 ..."

10절 "... 내 양 ... 내 양...", 11절 "... 내 양...", 12절 "... 내 양...", 15절 "... 내 양..."

하나님이 "내 양"이라고 10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양의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요 10:1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유권은 오직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이 땅의 목자들에게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양육과 관리권만 있습니다.

양은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목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양은 성도요, 목자는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이죠.

그러므로, 저와 같은 목회자를 포함해서 교회 지도자들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양의 소유권은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2. 이스라엘 목자들에 대한 책망(1-10절)

2절, "...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3절,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4절,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8절, "...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 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양의 소유권은 주님께만 있기에, 목자는 주님의 뜻에 따라 양을 먹이고 돌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양떼를 이용해 자기 배만 불립니다.

주님의 뜻 보다는 목자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양떼를 이용 가치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먹이고 돌보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결과를 보십시오.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6절, "내 양떼가 ...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 흩어졌으며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7절,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양들이 유리되고, 흩어지고, 노략거리와 들짐승의 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이 땅의 목자에게 찾으십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목자는 많은 데 주님 보시기에 참된 목자는 없다는 주님의 탄식이신 거죠.

제 마음을 조이는 말씀입니다.

10절,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 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대적한다’는 표현은 원수들에게나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님의 양떼를 맡은 목자들을 대적하십니다.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실은 목자들이 먼저 주님을 대적한 겁니다.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배를 채우느라 맡겨진 양떼를 먹이거나 돌보지 않는 일이,
곧 주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3.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11-16절)

- 11절**, “...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12절, “... 내가 내 양을 찾아서 .. 건져낼지라”
13절, “내가 그것들을 ... 끌어내며 ... 모아 ... 먹이되”
14절, “...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 땅의 목자들 중에는 참된 목자가 없습니다.
거짓 목자들 아래서 양떼들은 영적으로 유리되고, 흩어지고, 사단에게 노략질 당하고, 사단의 먹이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참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잃은 양 비유(눅 15장)처럼, 하나님이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찾고,, 찾아... 먹이고... 먹이리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마리 잃은 양이라도 더 찾으시기 위해 찾고 찾으시는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4. 에필로그

오늘 본문 앞에서 가장 할 말이 없는 사람은 제 자신입니다.
나는 어떤 목회자인가?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 주님의 양떼를 이용하는 자인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자인가?
제 스스로를 겸허하게 돌아봅니다.

그리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목회자가 아닌 주님이 인정해주시는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또한 저는 목회자이기 전에,
주님이 찾고 찾으시는 주님의 양이 되고 싶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요 10:27)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들으며,
묵묵히 믿음으로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